

청소년의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도박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김 성 아
KAIST 스트레스 클리닉
임상심리사

김 예 나[‡] 장 은 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도박문제 발달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13~19세의 청소년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년 간격을 두고 총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차 조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성인에게만 허용된 합법 도박 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및 온라인 포커/화투 게임 등의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2차 조사에 재참여한 5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남성 50.6%(279명), 여성 49.4%(272명)이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3.5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차 시점에서 측정된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2차 시점에서 측정된 도박문제가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도박위험 환경 노출이 도박문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위험 환경 노출이 도박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박 위험환경에 동일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도박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박중독 예방 및 개입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도박, 도박 위험환경, 도박문제 발달, 성별, 종단연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 68718). 또한 본 연구는 건강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음(KYU-2018-019-01)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예나, (34098)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Tel: 042-828-3337, E-mail: kimyena@kbtus.ac.kr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중1~고2) 17,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은 2018년 47.8%로 나타나 2015년 42.1% 대비 5.7%가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같은 조사에서 최초로 도박을 시작한 연령이 만 13~15세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015년 38.3%에서 2018년 43%로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어 도박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도박문제 위험집단도 2015년 5.1%에서 2018년 6.4%를 나타내어 도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2018).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같이 전자기기 사용과 온라인 게임, SNS등 온라인 문화와 놀이에 익숙한 세대이다. 디지털 세대인 현재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돈내기 게임 및 온라인 도박에 대한 노출이 쉬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Parker, Taylor, Estabrook, Schell, & Wood, 2008).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에서 온라인 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도박을 한 집단이 오프라인 도박을 한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도박중독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Ladd & Petry, 2002; MacKay, 2005).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이 도박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영근, 김주일, 이영글, 2018),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은 중위험 도박수준과 문

제성 도박 수준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 이래혁, 장혜림, 2018). 이와 같이 현대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박 접근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도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을 때(문미자, 2017; 이슬행, 이성규, 나지훈, 2020; 이인혜, 2005; 정병일, 2014).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의 도박 환경은 점차 청소년의 도박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변인을 통해 경험한 간접도박 경험이나 SNS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 광고, 지인의 도박권유 등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손쉽게 도박 위험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예나, 권선중, 2020).

도박문제의 발달과정을 설명한 Orford(2001), Blaszczynski와 Nower(2002), Shaffer 등(2004)은 공통적으로 처음 도박행동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을 도박과 관련한 높은 노출과 가용성 및 접근성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Shaffer와 Korn(2002)은 문제도박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도박문제가 있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도박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접근(public health paradigm for gambling)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접근에서는 도박을 하게 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환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도박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을 나타내는 ‘접근성’,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도박을 얼마나 수용적이고 적절하게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수용성’, 도박성 게임을 할 수 있

는 기회와 시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의미하는 '가용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도박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도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도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경우 개인의 취약적 특성에 따라 도박문제 수준이 강화될 수 있다 (Shaffer et al., 2004).

현재 국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접근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주변에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도박 광고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은 도박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변 친구나 부모의 도박 여부가 문제성 도박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있으며(Langhinrichsen-Rohling, Rohde, Seeley, & Rohling, 2004), 국내 연구에서 주변에 도박자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도박중독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래혁, 장혜립, 이재경, 2018). 또한 수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인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도박을 얼마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 또한 문제 도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교현, 2006).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만연해지면서 도박에 대한 인식이 마치 게임이나 놀이와 같이 쉽게 상용화되고 주변 친구들이 쉽게 권유하는 문화가 될수록 도박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가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도박성 여가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거나 도박을 할 수 있는 경제력, 시간 등은 문제 도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혁준, 신현

지, 김교현, 2019). 특히 청소년의 경우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발달적 특성을 가진다. 청소년에게 또래집단은 중요한 환경 중 하나이며,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규준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해 도박을 하는 주변인의 존재와 환경은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김용석, 2018; 이슬행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도박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금전동기, 비합리적 도박신념, 우울, 접근성, 초기 노출, 애착 등 개별 요인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혹은 청소년기의 도박중독 문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박문제로 발전하는지에 대한 질적연구들이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단일 시점에 각 요인들이 도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친다. 본 연구에서는 1년 간격의 시점을 두고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단기 종단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박 심각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영호, 2011; 채수정, 이성규, 2019; Lynch, Maciejewski, & Potenza, 2004). 국외의 도박 유행률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도박 활동에서 남성의 도박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Wardle et al., 2007), 남성이 여성보다 도박성향과 도박중독 모두에서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NGCC, 2009). 국내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돈을 딴 경험이 문제 도박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래혁 외, 2018), 남학생 집단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향이 문제도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 외,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박에 노출되고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여성들은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살펴보았을 때 2013년 기준 남성 8.9%, 여성 2.0%를 나타내었다. 이후 2년 뒤인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유병률이 8.0%, 여성의 유병률이 2.3%를 나타내어 남녀 차이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2016). 또한 카지노 도박에 있어서는 남성의 유병률이 66.8%, 여성이 69.4%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창우, 김세원, 김남선, 2016; 홍선희, 2019). 따라서 성차가 도박행동에 관한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도박 행동과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적절한 개입방향을 다룰 필요가 있다(Delfabbro, 2000; Grant & Potenza, 2012; Wong, Zane, Saw, & Chan,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도박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업체 M사를 통해 만13~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1년 간격을 두고 총 두 차례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1차 조사는 2018년 6월, 2차 조사는 2019년 6월에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1차 조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성인에게만 허용된 합법 도박 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및 온라인 포커/화투 게임 등의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2차 조사에 재참여한 총 5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0.6%(279명), 여성 49.4%(272명)이었고, 연령 평균은 17.5세(표준편차 1.42세, 범위 13~19세)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도구인 GPSS(총점범위 0~27점)의 분류 기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비문제군(0~1점)’ 1차 64.1%(353명), 2차 69.3%(382명), ‘저위험군(2~5점)’ 1차 20.3%(112명), 2차 12.7%(70명), ‘문제군(6점 이상)’ 1차 15.6%(86명), 2차 18.0%(99명)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도박문제. 청소년의 도박문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캐나다 청소년 도박 척도(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의 하위 척도인 ‘도박문제 심각성 척도’(Gambling Problems Severity Scale: 이하 GPSS) 한국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을 활용했다. 본 척도는 ‘없다(0)’에서 ‘항상 있다(3)’ 사이에 응답하는 아홉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범위 0~1점은 비문제 (Green), 2~5점은 위험(Yellow), 6점 이상은 문제 (Red) 수준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1차 .913, 2차 .943으로 나타났다.

도박 위험환경 노출. 청소년의 도박 위험환경에 대한 노출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김예나, 권선중(2020)이 수행한 청소년 도박문제 발달 및 자발적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의 원자료에서 주요 목록을 도출하여 총 여덟 문항의 예비문항 목록을 만들었다. 각 문항은 문항의 내용에 따라 ‘없다(0)’에서 ‘매번 봤다/5명 이상 있다/5회 이상 있다/늘 있다(4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개발한 최종 노출 목록의 세부 내용과 측정도구의 심리 측정적 속성은 결과 부분에 자세히 제시했다.

분석방법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도박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Hayes(2013)의 PROCESS macro 3.5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1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시점에 수집됨에 따라 독립변수에는 1차 시점 측정치, 종속변수에는 2차 시점 측정치를 각각 투입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결 과

청소년 도박 위험환경 노출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신뢰도

먼저 1차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척도가 단일요인을 가정하고 개발되었지만, ‘고유가 1 이상인 요인 수’가 2요인 모형(1요인 3.75, 2요인 1.20)이 도출되어 사교회전을 적용하여 요인구조와 문항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요인의 문항 내용에 차이가 없어서 1~3요인의 구조를 각각 비교분석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및 Scree Plot에서 eigenvalues가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 개발자의 개발의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일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단일요인구조를 바탕으로 내적일관성 계수를 활용하여 확인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32로 나타났다. 1번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842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해당 문항을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도의 신뢰도임에 따라 해당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총 8문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차의 전체 문항 신뢰도는 .816으로 나타났다. 단일요인 구조의 요인 부하량과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 문항 분석 결과 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요인분석 결과 및 문항분석 및 문항 제거 시 신뢰도 변화 분석결과

	<i>M</i>	<i>SD</i>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문항제거시 Alpha	요인 부하량
1 '스포츠토도'나 '돈내기 게임' 광고를 본 적이 있다.	1.27	.86	.17	-.63	.297	.842	.394
2 친구나 선후배 중, '사다리, 달팽이, 그래프, 로하이' 등의 돈내기 게임'이나 '스포츠토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1.06	1.10	.69	-.84	.515	.818	.647
3 친구/선후배가 게임 혹은 베팅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언을 하거나 결과를 예상 해 본 적이 있다.	1.14	1.02	.56	-.78	.706	.795	.806
4 조언을 하거나 예상한 결과가 맞았던 적이 있다.	1.52	.88	.40	-.74	.600	.807	.724
5 친구/선후배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본 적이 있다.	1.54	1.09	.11	-1.32	.686	.794	.795
6 친구/선후배로부터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32	.98	.41	-.81	.651	.799	.763
7 친구나 선배의 ID나 통장을 빌려서 돈내기 게임이나 베팅을 해본 적이 있다.	.23	.59	2.83	7.93	.522	.817	.639
8 친구나 선배가 돈내기 게임이나 베팅을 할 때, 본인이 대신 계좌 이체를 해주거나 받은 적이 있다.	.23	.60	2.87	8.16	.499	.820	.617

청소년의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도박문제 발달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1차 도박 위험환경 노출은 1차 도박문제와는 $r=.499(p<.01)$, 2차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는 $r=.629(p<.01)$, 2차 도박문제와

는 $r=.346(p<.01)$, 1차 도박문제와 2차 도박문제와는 $r=.401(p<.01)$ 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검증되었다.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도박문제 발달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박 위험환경 노출의 1차 시점 측정치를, 종속변인에는 1년 뒤 측정 한 2

표 2.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i>SE</i>	<i>t</i>	LLCI	ULCI	R^2	<i>F</i>
도박문제 2차	(A)도박 위험환경 노출 1차	-.02	.09	-.28	-.20	.15	.14	28.79***
	(B)성별	-2.44	.76	-3.23**	-3.93	-.96		
	(A)x(B)	.18	.06	2.82**	.06	.31		

** $p<.01$, *** $p<.001$.

표 3. 성별에 따른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도박문제 수준의 관계 분석

집단구분	β	<i>SE</i>	<i>t</i>
남성	.16	.03	4.65***
여성	.34	.06	6.21***

*** $p<.001$.

차 시점의 도박문제 수준(GPSS), 조절변인에는 성별을 각각 투입하고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을 선택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18, t=2.82, p<.01$), 1차 시점의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2차 시점의 도박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는 여자 청소년($\beta=.34, t=6.21, p<.001$)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beta=.16, t=4.65, p<.001$)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박 위험환경에 동일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도박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도박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조건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성인에게만 허용된 합법 도박 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및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만13~19세의 청소년이었으며, 변인들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인과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년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도박 위험환경에 대한 노출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예나, 권선중(2020)이 수행한 질적연구의 원자료에서 주요목록을 도출하여 아홉 문항의 예비문항 목록을 만들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 내적일치도 분석 등을 통해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점에서 측정된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두 번째 시점에서

측정된 도박문제가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도박문제가 증가되고(김교현, 2006), 청소년의 주변에 도박자가 있거나 도박장이 있는 경우 모두 문제 도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이래혁 등, 2018),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특정 문제 행동을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주변 사람들과의 차별적 접촉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박정선, 황선현, 2013)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도박 유희환경으로 거주지 주변 도박시설의 존재(서울특별시, 2014; 연미영, 2006) 및 거주지 내 위치한 도박시설에 대한 인지(서울특별시, 2014; 이인혜, 2005) 등 주거지와 인접한 도박 시설의 여부가 도박 행동 및 신념에 미치는 영향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지면서 도박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이슬행 등, 2020), 손쉽게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주변 지인들이 도박하는 과정과 광경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 광고에 대한 노출 및 주변 친구나 선배들이 도박하거나 돈을 따는 것을 목격한 경험들을 도박 위험환경으로 포함하여 살펴본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발달과정을 생태학적 환경으로 설명하는 Bronfenbrenner(198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은 부모나 형제와 같은 미시체계, 학교와 같은 중간체계, 사회의 구조와 같은 외체계, 문화가 같은 거시체계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맥락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히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체계와 상호작용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연미영, 2006). 또한 도박문제에 접근할 때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Shaffer & Korn, 2002)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에 있어서 위험환경 노출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박 위험환경 노출과 도박문제 발달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시점의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2차 시점의 도박문제를 예측하는 정도는 여자 청소년이($\beta=.46$, $t=6.39$, $p<.001$) 남자 청소년에 비해($\beta=.19$, $t=4.79$, $p<.001$)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박 위험환경에 동일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도박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 도박자는 남성도박자와 비교하여 비교적 늦은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나 도박을 시작한 후에는 빠른 속도로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발달기간 단축효과(telescoping effect)를 나타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강성군, 2010; Grant, Chamberlain, Schreiber, & Odlaug, 2012; Grant & Kim, 2002). 즉, 여성이 남성보다 도박을 시작한 시점에서 장애로 발병하는 기간이 짧고 더 빠르게 병적 도박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홍선희, 2019) 기존에 성인을 대상으로 도박행동과 문제의 성차를 탐색한 연구에서 하루 평균 도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병적 도박 수준이 증가하는 속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도박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 빠르게 문제성 도박

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낸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강성군, 2010).

도박문제와 성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도박 심각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채수정, 이성규, 2019; Lynch et al., 2004).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의 도박중독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청소년기에 도박을 접하는 기회가 더 적고, 따라서 남성보다 도박을 더 늦은 나이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영호, 2011). 남성의 경우 높은 자극추구경향성과 충동성 등으로 여성에 비해 기본적으로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도박 위험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도박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고 도박문제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여성이 도박 문제에 대한 심리적 면역력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강성군, 2010). 또한 도박과 관련된 광고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돈을 거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Weiss & Petry, 2008), 주변의 도박 위험환경이 여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도박을 한 전체 기간이 짧더라도 도박 위험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도박 횟수나 시간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elescoping effect는 도박에서 뿐만 아니라 알코올 및 아편 등 다양한 중독 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병적인 수준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을 나타낸다(강성군, 2010; 송주연, 연구

월, 이태경, 2005; Brady & Randall, 1999; Piazza, Vrbka, & Yeager, 1989; Quinby & Graham, 1993; Hochgraf, Zilberman, & Andrade, 1995). 선행연구 중 알코올이나 아편 의존에 관해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감수성 요인을 진행 속도의 차이에 대한 이유로 설명하였고, 도박문제의 진행 속도 차이는 여성에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기계 도박의 선호와 같은 도박 종류에 관련된 측면을 나타내었는데, 도박 문제에서도 이러한 생물학적 감수성 요인 및 도박 종류에 따른 성별의 진행 속도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송주연 외, 2005; Potenza et al., 2001). 또한 성별에 따른 도박 동기와 선호도, 정서적 문제 등 도박행동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Potenza et al., 2001) 여자 청소년에게 맞는 차별화된 도박문제 예방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박 위험환경 노출이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년 간격의 시점을 두고 측정하여 살펴본 단기 종단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 도박 및 도박성 게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현대사회에서 도박 위험환경이 도박문제를 야기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차가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만 성별에 따른 도박행동과 치료적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많이 없다(Grant & Potenza, 2012). 특히 도박시설의 증가, 합법화된 도박의 기회 등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도박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과거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왔던 문제성 도박의 비율이 여성에게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홍선희, 2019) 본 연구결과를 성별에 따른 예방 및 치료개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박 위험환경이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 사이트 및 광고 차단, 규제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또래집단의 건강한 대안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박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박문제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및 치료적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과정에서 연구 방법이 자기보고식으로만 이루어져 과대 또는 과소 보고와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본 주제와 관련된 질적연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관계, 가족관계, 정서 등 다양한 발달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문제성 도박의 발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 환경의 효과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도박문제의 회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성군 (2010). 도박행동과 문제의 성차: 내국인 카지노 출입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교현 (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43-274.
- 김영호 (2011). 대학생 문제도박의 성별 차이와 건강위험행동과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61-71.
- 김용석 (2018). 도박문제 보호-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 모델 개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1-148.
- 김예나, 권선중 (2020). 청소년 도박문제 발달 및 자발적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125-151
- 김혁준, 신현지, 김교현 (2019). 주도적 대처는 도박관련 환경에서 문제성 도박의 보호요인인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695-708.
- 문미자 (2017). 중학생의 도박성게임의 접근성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족 건강성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선, 황선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 박창우, 김세원, 김남선 (2016). 카지노 주변 도박관련 체류자 실태조사.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폐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송주연, 연규월, 이태경 (2005). 여성 도박자의 임상적 특성. 神經精神醫學, 44(6), 676-681.
- 연미영 (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14.
- 이래혁, 장혜림, 이재경 (2018). 청소년의 돈을 만 경험과 도박 유해환경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284-293.
- 이슬행, 이성규, 나지훈 (2020). 청소년의 도박접근성과 도박문제 수준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7(5), 63-87.
- 이인혜 (2005). 카지노 유치지역 주민의 도박참여 및 도박중독 실태와 삶의 만족도-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4), 57-82.
- 이재경, 이래혁, 장혜림 (2018).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과 문제도박의 관계에서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 비교.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0), 523-530.
- 정병일 (2014). 대학생 도박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중독포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20).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 서울: 중독포럼.
- 채수정, 이성규 (2019).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48, 25-43.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영근, 김주일, 이영글 (2018).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이 도박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7(2), 363-390.
- 홍선희 (2019). 카지노 인근에 머무는 중노년 여성의 도박과 체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3), 283-313.
- Blaszczynski, A., & Nower, L. (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 Addiction*, 97(5), 487-499.
- Brady, K. T., & Randall,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substance use disorder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2(2), 241-252.
- Bronfenbrenner, U. (198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lfabbro, P. (2000). Gender differences in Australian gambling: A critical summary of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145-158.
- Grant, J. E., Chamberlain, S. R., Schreiber, L. R. N., & Odlaug, B. L. (2012). Gender-related clinical and neurocognitive differences in individuals seeking treatment for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9), 1206-1211.
- Grant, J. E., & Kim, S. W. (2002).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ers seeking medication treatment. *Comprehensive Psychiatry*, 43(1), 56-62.
- Grant, J. E., & Potenza, M. N. (2012). 병적 도박의 치료와 임상지침. 이재갑, 이경희, 김종남, 박상규, 김교현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4)
- Hochgraf, P. B., Zilberman, M. L., & Andrade, A. G. (1995). Women alcoholics: social,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a Brazilian sample. *Alcohol and Alcoholism*, 30(4), 427-432.
- Ladd, T. G., & Petry, N. M. (2002). Disordered gambling among university-based medical and dental patients: A focus on Internet gambl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6(1), 76-79.
- Langhinrichsen-Rohling, J., Rohde, P., Seeley, J. R., & Rohling, M. L. (2004). Individual, family, and peer correlates of adolescen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1), 23-46.
- Lynch, W. J., Maciejewski, P. K., & Potenza, M. (2004). Psychiatric correlates of gambling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grouped by age gambling onse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1, 1116-1122.
- MacKay, T. L. (2005). *Betting on youth: Adolescent Internet gambling in Canada*. Niagara Falls, ON: Discovery.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09). *Development of gambling prevention programs*.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13-115.
- Orford, J. (2001). *Excessive appetites: A psychological view of addictions*.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 Parker, J. D., Taylor, R. N., Eastabrook, J. M., Schell, S. L., & Wood, L. M. (2008). Problem gambling in adolescence: Relationships with internet misuse, gaming abuse and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45(2), 174-180.
- Piazza, N. J., Vrbka, J. L., & Yeager, R. D. (1989). Telescoping of alcoholism in women alcohol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4(1), 19-28.
- Potenza, M. N., Steinberg, M. A., McLaughlin, S. D., Wu, R., Rounsaville, B. J., & O'Malley, S. S. (2001).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 gamblers using a gambling helplin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9), 1500-1505.
- Quinby, P. M., & Graham, A. V. (1993). Substance abuse among women. *Primary Care*, 20, 131-140.
- Shaffer, H. J., & Korn, D. A. (2002). Gambling and related mental disorders: A public health analysi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3(1), 171-212.
- Shaffer, H. J., Laplaneter, D. A., Labirie, R. A., Kidman, R. C., Donato, A. N., & Standon, M. V.

-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6), 367-374.
- Tavares, H., Zilberman, M. L., Beites, F., & Gentil, V. (2001). Gender differences in treatment-seeking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7*(2), 151-159.
- Wardle, H., Sproston, K., Orford, J., Erens, B., Griffiths, M. D., Constantine, R., & Pigott, S. (2007). *The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2007*.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 Weiss, L., & Petry, N. (200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ventory of Gambling Situations with a focus on gender and age differenc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6*(4), 321-328.
- Wong, G., Zane, N., Saw, A., & Chan, A. K. K. (2013).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for Gambling Engagement and Gambling Problem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9*(2), 171-189.

원고접수일: 2020년 12월 3일

논문심사일: 2020년 12월 22일

게재결정일: 2021년 2월 22일

The Effects of Exposure to Gambling Risk Environments on the Development of Gambling Problems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Soung Ah Kim
KAIST Stress Clinic

Yena Kim Eun Jin Ch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a gambling risk environment and gambling problem in adolescent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panels of youth aged 13-19, and surveys were conducted twice at intervals of one year to deter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tudy subjects were adolescents who responded, "I participated in legal gambling or illegal online gambling and gambling in online poker/Hwa-Too games that only allowed adults in the past six months." A total of 551 subjects participated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50.6% males and 49.4% females.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Hayes' PROCESS macro 3.5 was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exposure to the gambling risk environment measured at the first time point and gambling problems measured at the second time point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indicating that exposure to a gambling risk environment had an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gambling problem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was significant, and the degree to which exposure to a gambling risk environment predicted a gambling problem was higher in female adolescents than male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emale adolescents have a higher risk of developing gambling problems than male adolescents when they are equally exposed to gambling risk environments. Finally, we discussed 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gambling addict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Keywords: Adolescents gambling, gambling risk environment, gambling problem development, gender, longitudinal study